**주님,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 전병욱**

****

† 주님,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중대한 두 가지 오해를 한다.

첫째, 두려움과 겸손에 대한 오해이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이 시대를 바꿀 사람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1요0418. 사랑 안에서는 아무런 무서움이 없으며, 대신에 완전한 사랑은 무서움을

내쫓느니라, 이는 무서움은 고문의 고통을 가지고 있음이라,

무서워하는 그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않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는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기도로 이 시대의 질서를 바꾸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외에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

책임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책임이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특권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로 승리할 특권을 주셨다.

이것은 책임이면서 감격스런 특권이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놓치지 말라.

둘째, 나태와 자족을 혼동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몇 가지 일을 하고 자족하는 사람이 있다.

이 정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나로서는

벅찬 일이라고 하며 그만 물러서 버린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셨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 일을 해야 하고,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받은 분량만큼 일해야 한다.

많이 받은 사람인가?

왜 자족하는가?

시대를 바꿀 사람은 시대를 바꾸어야 한다.

바울은 몇 개 교회를 살리고 그만하면 됐다고 자족했는가?

아니다.

그는 죽도록 충성했다.

행2024. 그러나 그런 것들 중의 어느 것도 나를 움직이지도 못하며, 또한 내 생명이

내 자신에게 소중하다고 내가 여기지도 않노니, 이는 나의 주로(走路)와①,

내가 주 예수에게서 받은 직분을 곧, 하나님의 은혜(호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②

기쁨으로 마치려 함이라.

왜 인생을 평범하게만 살아가려 하는가?

“주님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부르짖음이 있어야 한다.

(전병욱 목사님이 지은 “히스기야의 기도” 중에서...)